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에 나타난  
시치료적 요소에 대한 연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文 佳 英

2016年 2月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에 나타난  
시치료적 요소에 대한 연구

指導教授 許允德

文佳英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年 12月

文佳英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6年 2月

<국문초록>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에 나타난 시치료적 요소에 대한 연구

文 佳 英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許 允 德

학교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어교과시간에 인성교육 차원에 서 시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 (1770~1850)의 시에 나타난 시치료적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여러 시인들 중에서 워즈워스 시인의 시를 시치료의 제재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생명존중 사상과 생태주의적 사고를 내포하는 범신론적 자연관 사상, 시치료의 원리 및 기능 요소 들이 워즈워스의 시 속에 종합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워즈워스는 영국 낭만주의 문학의 대표 시인으로서 콜리지(S. T. Coleridge)와 함께 낭만주의 시론을 정립하였으며, 그의 시론을 바탕으로 한 워즈워스의 시 작품들은 상상 력과 고요 속에 회상된 정서인 사색을 통한 시작(詩作)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즉, 워즈워스의 시를 읽는 동안 독자들은 회상을 통한 인생의 깊은 깨달음과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상상력을 통해 시적 대상을 주체자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서 자기성찰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재와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시적 대상과의 동일시를 통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인생에 대한 희로애락(喜怒哀樂)을 공유함으로써 내면 의 부정적인 정서를 치유하게 된다.

어린 시절 자연과 친교하며 기쁨과 치유력을 얻었던 워즈워스는 자연이 베푸는 혜택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 자연에 대한 사랑을 우주만물에 대한 보편적 사랑으로 확장하여 범신론적 자연관을 형성하게 된다. 만물을 신성한 존재로 인식하며,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있는 범신론적 사상은 모든 생명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존중사

---

※ 본 논문은 2016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상과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더불어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사고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인 힘은 워즈워스의 시 속에 잘 나타나 있는 시치료적 요소로서 인성교육을 위한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시치료의 원리로서 헤닝어(Owen E. Heninger)가 제시하는 환기방법(ventilation), 카타르시스(catharsis), 치료적 탐구과정(exploration), 이해하는 방법(understanding), 위안을 주는 정신치료(support) 및 활동적인 숙달방법(active mastery)을 적용하여 워즈워스의 시에 나타난 시치료적 요소를 분석하였고,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시치료의 방법으로서 수용적/처방적 요소(receptive/prescriptive component), 표현적/창조적 요소(expressive/creative component) 및 상징적/의식적 요소(symbolic/ceremonial component)를 활용한 예를 제시하였다.

영어교과시간에 시행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방안으로 워즈워스의 시와 범신론적 자연관 사상을 시치료와 접목시켜 시치료적 요소를 분석한 본 논문을 출발점으로 향후에는 다양한 영시를 활용한 시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 목 차

국문초록 .....	i
목차 .....	iii
I. 서론 .....	1
II 시치료와 인성교육 .....	5
III. 시치료와 위즈워스 .....	17
1. 위즈워스의 시론과 시치료 .....	17
2. 위즈워스의 자연관과 시치료 .....	21
3. 위즈워스 시의 시치료적 요소 .....	31
IV. 결론 .....	50
Bibliography .....	53
Abstract .....	56

## I. 서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불안증과 우울증,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일선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문제의 심화, 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의 부족 및 왕따 문제와 같은 친구관계에서의 심한 갈등 때문에 무력감, 열등감, 게임중독, 적개심, 폭력성의 성향을 보이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신적·심리적 문제들은 해마다 증가추이를 보이며,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져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부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초·중등교육의 질을 높이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2009개정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주된 방향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배려와 존중의 생활을 실천하고, 공동체적 인격과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구성방침에서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 한다”는 항목이 신설되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목표에서 “더불어 살아가며 협동하는”을 추가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교육과정 전반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sup>1)</sup> 장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성교육이 강화되는 교육정책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여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들이 겪는 학교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과에서 교과시간을 통해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방법으로 영시를 활용한 시치료(poetry therapy)<sup>2)</sup>를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치료<sup>3)</sup>란 말은 물리적 수단을 통해서 육체적 상처를 치료하는 것(curing, treatment)보다는 심신적으로 마음의 병을 스스로 낫게 하는 과정인

1) 이미숙 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 따른 고등학교교육과정 해설 총론 증보편』, 교육부, 2014, pp. 22-23.

2) 시치료(poetry therapy)란 ‘poetry’라는 ‘시’와 그리스어 ‘therapeia’의 ‘도움이 되다, 의학적으로 병을 고쳐주다’라는 말의 합성어이다.

3) 이 논문에서는 치료를 치유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한다.

치유되는 것(healing, therapy)에 보다 더 가깝다.<sup>4)</sup> 선행연구 자료를 보면 ‘문학치료(literatherapy)’와 ‘독서치료(bibliotherapy)’를 시치료와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학치료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문학 장르에 따라 그 안에 다시 시치료, 독서치료, 이야기치료, 연극치료, 글쓰기 치료 등이 포함된다.

시치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를 미시적 의미와 거시적 의미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미시적 의미의 시치료란 정서, 인지, 행동,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독자를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시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손상되고 미숙한 자아를 보다 통합적이고 조직화된 ‘건강한 자아’로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을 말한다. 반면, 거시적인 의미의 시치료는 치료자와 독자가 치료적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생각하기, 시적활동 하기 영역은 물론 시치료에 필요한 보조적 활용 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적 활용영역에 속하는 활용소재로는 음악자료, 미술자료, 동작자료, 드라마, 영화, DVD, 슬라이드, 하이퍼텍스트, 미디어자료와 같은 영상물이 있으며, 그 외 내담자의 감각, 정서, 인지, 행동을 일깨울 수 있는 은유적이며 창조적인 방법들을 총체적으로 치료과정에 응용하여 참여자를 치료하는 활동을 포괄한다.<sup>5)</sup> 나아가 미국 시치료학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Poetry Therapy)가 밝힌 시치료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시치료는 통합적 치료방법으로서 몸과 마음의 정신 건강을 돌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며, 이 과정에서 문학이 주도적으로 혹은 부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훈련받은 시치료사가 참여자들에게 글쓰기 작업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감정을 표출하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sup>6)</sup>에서 치료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마자(Nicholas Mazza)는 시치료의 방법에 있어서 ‘시 쓰기’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조각조각난 생각과 느낌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하는 매우 유용한 치료적 도

4) 변학수, 『문학치료』(서울: 학지사, 2005), p. 16.

5) 최소영, 「치료적 시문학 교육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시치료의 이해와 임상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0(2005), pp. 302-303. 재인용.

6)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Poetry Therapy(<http://www.poetrytherapy.org>), 「Where and How is Poetry Therapy Used?»



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를 통해 개인적인 감정을 적기 시작함으로써 그러한 감정들을 보다 더 분별 있게 확인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내면의 자아에 대한 통제감을 증진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다.<sup>7)</sup> 영시에 나타난 이러한 시치료의 효과적인 요소에 대해 직접 적용하고 분석하기 위해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의 대표적인 시 작품들을 살펴볼 것이다. 워즈워스의 시에는 시치료적 기능을 하는 요소가 충분히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워즈워스의 범신론적 자연관이 내포하고 있는 사상이 시치료의 원리와 접목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워즈워스는 자연을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자연 속에 깃든 신의 존재를 감지하게 되는데, 노이어스(R. Noyers)는 우주 만물에 생동하는 힘이 깃들어 있고 그 힘이 곧 자연이며, 일체의 자연을 생명력을 갖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고 있다.<sup>8)</sup> 이러한 범신론적 자연관은 만물을 생명이 깃든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학생들은 워즈워스의 시에 나타난 범신론적 자연관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이를 존중하려는 생명존중사상의 가치관을 내면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생명경시 풍조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청소년들의 자살률 증가와 학교폭력, 왕따와 같은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워즈워스의 범신론적 자연관 사상이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시치료를 영어교과시간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시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적절한 영시를 선정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워즈워스의 시에 나타난 시치료적 요소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먼저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인성의 개념, 현 인성교육 정책의 방향과 청소년기의 인성교육을 위한 시치료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시치료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시치료의 과정,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워즈워스의 시론과 자

---

7) Nicholas Mazza, *Poetr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3), p. 26.

8) Russel Noyes, *English Romantic Poetry and Prose* (New York: Oxford UP, 1965), p. 237.

연관에 나타난 시치료적 요소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특히 범신론적 자연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우선 워즈워스의 자연관 형성의 배경을 살펴보고 워즈워스의 범신론적 자연관과 시치료의 접목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후, 마지막으로 워즈워스의 시 작품에 나타난 시치료적 요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할 것이다.

## II. 시치료와 인성교육

인성교육이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려는 교육’을 말하며, 국어사전에의 사전적 정의에서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을 가리킨다. 즉, 지·덕·체(智德體)와 지·정·의(知情意)가 고루 발달한 ‘전인성’이나 혹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특성들이 통합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sup>9)</sup> ‘인성’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역사적, 이론적, 사회적, 교육적 맥락에서 쓰여 왔기 때문에 그 개념의 범위와 깊이를 특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적 변화와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김재춘 등은 『실천적 인성교육이 반영된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에서 기존 논의들을 바탕으로 도덕적인 덕목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연대의식이나 문화적 가치도 인성의 일부분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을 감안하면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시민의식, 국제문화이해 등이 인성요소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0)</sup> 이러한 인성요소들은 다양한 문학작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특히 문학작품 중에 시는 인생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며, 독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깊은 사색을 통한 자기성찰을 이끌어주므로 시를 활용한 인성교육은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천세영 등은 『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방안 연구』에서 우리 학교에서 추구해 나가야 할 인성의 세 가지 차원과 핵심역량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 바 있다. 첫째, 도덕성 차원으로서 정직, 책임과 같은 핵심 덕목을 내면화하여 다양한 윤리적 상황에서 중요한 핵심가치를 인식하고 판단하여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둘째, 사회성 차원으로서 공감과 소통을 통하여 타인의 생각, 감정, 관점을 이해하고 서로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셋째, 감성 차원으로서 긍정, 자율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개

9) 양정실 외,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p. 10.

10) 김재춘 외, 『실천적 인성교육이 반영된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2, p. 22.

발하여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sup>11)</sup>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인성요소들은 모두 시치료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최소영은 시치료의 목적을 자각과 표현 능력 향상, 수용과 관대함으로 통합된 건강한 자아 형성, 공감과 유대감을 통한 상생(相生)의 대인관계 형성, 변화와 성장으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 가꾸기<sup>12)</sup>로 두고 있다.

또한, 라이터(Sherry Reiter)는 시치료의 목적을 생생한 이미지와 개념, 그리고 그것들이 불러일으키는 느낌에 반응하는 능력의 개발, 자기이해와 정확한 자기인식의 증진, 현실의 직시, 창조성과 자기표현의 개발, 긍정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문제해결능력의 신장, 의사소통 능력의 강화, 억압하는 감정의 표출을 통한 긴장의 완화, 직관을 통한 새로운 의미부여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3)</sup>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볼 때, 시치료는 자각을 통한 자아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 상생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감정을 토로함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키고, 변화와 성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므로 인성교육을 실현하는데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학교현장에 인성교육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인성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덕목인 인성역량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성교육에서 중시해야 할 주요 요소가 단지 가치덕목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실천해낼 수 있는 역량에까지 연계되어 제시되어야 하는데, 학교 인성교육의 이러한 흐름에 대해 조난심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최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교육에서는 기존의 지식 중심의 내용만이 아니라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를 이루고 있다. 곧 학교 인성교육에서는 기존의 인격교육에서 강조하는 덕목들(virtues)만이 아니라, 미래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2013년에는 학교 폭력

11) 천세영 외, 『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2, pp. 51-53.  
 12) 최소영, 「시치료가 정서지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p. 19-21.  
 13) Sherry Reiter, "Poetry Therapy: Testimony on Capitol Hill," *Journal of Poetry Therapy*, 10.3. (1997), pp. 170-171.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인성교육 관련 주요 교과인 도덕과, 사회과, 국어과의 교육과정이 인성교육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개정되기에 이르렀다(이미숙 외, 2012). 여기서 말하는 인성교육 핵심역량이란 공감 능력, 소통 능력, 갈등해결 능력, 관용, 정의 등이다. 교과부는 이러한 인성교육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과 더불어 관련되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전국의 학교에 배포한 바 있다.<sup>14)</sup>

즉, 이러한 교육계의 흐름에 따라 학교 교과교육에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성교육을 교과교육을 통해서 구현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덕목·인성역량으로 존중, 배려, 책임, 참여와 협동, 공감과 수용, 대화와 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정책방향과 더불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들의 정서적 건강수준 저하 및 학교 폭력과 청소년 자살률 증가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학교 교육이 지식교육에 방점을 두고 인성교육을 소홀히 해 온 결과 학생들 간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무관심,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장애, 공격행동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인성교육 실천과제로 체육, 예술 활동 강화, 독서활동 강화, 학생자치활동 강화, 대입제도 개선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단기적인 프로그램의 도입만으로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가정과 사회가 담당하던 기존의 인성교육 패러다임을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재편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는데,<sup>15)</sup> 이는 학교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과교육에서 인성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각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성교육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지목되는 교과로는 국어, 사회, 도덕, 음악, 미술, 체육 등이 있다.<sup>16)</sup> ‘그렇다면 영어교과 시간에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스스로 고찰을 하는 과정

14) 조난심, 「학교 인격교육의 재음미」, 『교육철학연구』 35.2 (2013), p. 106.

15) 교육과학기술부(2012e), 『인성교육 설문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2. 9. 4.)

16) 양정실 외, pp. 2-3.

에서 영시를 활용한 시치료 방안을 착안하게 되었다.

최소영은 「치료적 시문학 교육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연구의 최종 결론으로 시치료가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sup>17)</sup>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시적도구와 시적 형상화 글쓰기, 시 쓰기가 치료적 역할을 하는데, 시는 독자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려주는 촉매(catalyzer)의 역할, 시를 듣거나 읽을 때 독자의 감정적·인지적 자극(stimulant)을 주는 역할, 이 밖에도 시를 낭송하거나 쓸 때 감정 배출(excretion)의 역할, 긍정적인 생각을 고정(fixed)시키는 역할 등을 한다. 또한 정서지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정서지능의 주요소인 감정인식 및 표현, 감정의 조절, 자기 동기화, 공감 능력, 대인관계 능력이 시적 자료를 읽고, 듣고, 쓰면서, 혹은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향상된다. 시치료는 심층면담과 글쓰기 및 시적 글쓰기를 통해 부정적·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자각하여 해체하고, 긍정적·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새롭게 가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직면과 공감으로 상처 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즉, 시치료는 정서지능의 향상과 더불어 인지적 변화를 초래하여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인성교육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시치료를 적절하게 학생들에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치료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치료의 과정, 원리 및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치료적 요소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시치료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독서치료의 과정을 따르며,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독서치료의 과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독서치료의 과정으로 활용되는 기존 모형 2가지를 제시하고 검토함으로써 시치료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우선, 독서치료의 과정 ICOIA(아이코이아)는 동일시(Identification), 카타르시스(Catharsis), 표출하기(Output), 통찰(Insight), 적용(Application)의 약칭이며, 다음의 5단계의 과정<sup>18)</sup>을 따른다.

첫 단계인 동일시는 책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자신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

17) 최소영, 「치료적 시문학 교육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pp. 333-335.

18) 원동연 외. 『5차원 독서치료』(파주: 김영사, 2005), pp. 56-59. 참조.

끼는 단계를 말한다. 동일시의 과정을 통해 독자는 더욱더 등장인물의 감정에 공감(empathy)하게 되고 적극적인 감정 전이를 일으켜 책의 내용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숨겨진 상처가 드러나 내면의 성장을 일으키게 된다. 두 번째 절차인 카타르시스 단계에서는 독자의 내면에 쌓여있는 욕구 불만, 심리적 갈등 상황들이 밖으로 표출되어 감정을 발산시키고 치유가 되는 경험을 가지게 되므로 독서치료의 과정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인 표출하기에서는 카타르시스 과정에서 발산된 감정을 글쓰기를 통해 내면에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읽은 내용을 직접 구조화시킴으로써, 정서적 감흥을 고취시키고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네 번째 과정인 통찰 단계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인식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과정이다. 2, 3 단계인 카타르시스와 표출과정을 거쳐야 도달할 수 있으므로 독서치료의 결실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적용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이뤄졌던 과정을 직접 자신의 내면에 적용시켜 치유를 도모하는 단계로써, 변화의 과정은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와 같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하인즈와 하인즈베리(Hynes & Hynes-Berry)는 독서치료의 과정을 인식(recognition), 고찰(examination), 병치(juxtaposition), 자기적용(application to self)의 4단계<sup>19)</sup>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첫 단계에서 인식이란 자료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참여자가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독서치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은 사람들이 문학작품에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료 속으로 참여자를 끌어들이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인식이 일어나는 방식이나 시기는 독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인식의 과정에서 동일시 혹은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도 있으므로 인식의 단계는 독서치료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서 고찰의 단계에서는 독자가 인식한 감정에 대한 반응이 실제로 그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독서치료자가 주로 ‘질문’기법을 통하여 고찰이 일어나도록 이끌어주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 어떻게, 왜’라는 질문들이 수반되며, 특히 ‘왜’라는 질문을 통해 독자 자신의

---

19) 김현희 외, 『독서치료』 (서울: 학지사, 2001), pp. 66-73. 재인용. 참조.



문제에 더 깊숙이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단계로서 병치 단계에서는 인식에 대한 고찰단계를 거쳐서 나타나게 된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인상과 독자가 가졌던 처음의 반응을 나란히 비교·대조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당면한 문제에 대해 보다 더 깊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기적용 단계에서는 작품을 통해 인식되고, 고찰되고, 병치되었던 느낌과 개념들이 자기적용의 경험으로 진전된다. 참여자는 전 단계를 거쳐 획득한 사고의 변화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비로소 치료적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토의되었던 상황이나 개념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가?’, ‘이 반응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까?’ 등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 봄으로써 자기적용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적용은 궁극적으로 참여자의 행동을 보다 창의적이고 자기활용적(self-utilizing) 행동으로 바꾸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시치료의 원리에 대한 논의는 헨inger(Owen E. Heninger)가 제시하는 이론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헨inger는 『정신의학의 미국 편람』(*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에서 시의 치료적 기능을 환기방법과 카타르시스(ventilation and catharsis), 치료적 탐구과정(exploration), 이해하는 방법(understanding), 위안을 주는 정신치료(support), 활동적인 숙달방법(active mastery), 안전한 방법(safety)<sup>20)</sup>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환기와 카타르시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Poetics*)에서 감정을 치료하는 데 있어 카타르시스의 역할을 논했는데, 카타르시스란 비극이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킨 뒤에 관객 자신의 연민과 공포를 다시 몰아낸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치료의 과정에 적용해보면, 카타르시스란 독자의 마음 속에 있는 강렬한 감정을 터놓고 표현함으로써 정서를 정화시키고 결국 심리적으로 자유로워지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위즈워스에 의하면 훌륭한 시란 “강력한 감정의 자연발생적 넘쳐흐름”(the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s)<sup>21)</sup>

20) O. E. Heninger, "Poetry Therapy," in: S. Arieti(ed.),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2nd Ed. Vol. 7. (New York: Basic Books, 1981), pp. 553-563. 참조.

21) M. H. Abrams, et. al.,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Vol. 2. (New York : W. W. Norton & Co, 1979), p. 173.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위즈워스의 시 작품에는 시인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여 정서를 드러내는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시를 읽거나 쓸 때 독자는 마음속의 감정을 배출하여 고통,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해방되어 치유의 과정을 겪게 된다.

두 번째 방법인 치료적 탐구과정에서는 독자가 시를 쓰고 읽는 과정에서 치료의 탐색과정을 촉진시키며 자기 발견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시는 인간 심층내면 세계를 비추어 주어 독자 스스로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깨닫게 하거나 갈등을 인지하게 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자기자각, 자기직면과 자기노출을 통해 자신의 느끼는 감정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을 갖게 해준다. 시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가장 진실되게 반영하고 표현해준다는 측면에서 리디(Leedy)는 시를 ‘진실의 추구자(trust seeker)’<sup>22)</sup>라는 말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 방법은 이해하는 방법이다. 독자들이 시를 읽는 동안 시 속에 투영된 시인의 감정과 사고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게 될 때가 있는데, 시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시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법을 이해하게 될 때 자신에 대한 이해도 더욱더 증진시킬 수가 있다. 결국 시치료란 시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자신에 대한 통찰과 이해를 통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방법인 위안을 주는 정신치료에서는 집단으로 시치료가 진행될 때 독서치료와 마찬가지로 독자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타인도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인간관계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아물게 하여 치료를 촉진하고 내면의 성숙과 성장을 도모하여 더욱더 통합된 인격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방법은 활동적인 숙달방법인데, 이 원리에 의하면 독자들은 시를 읽으며 시적화자의 감정과 욕구에 동일시하며 공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지금까지 있을 수 없거나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여 부인하고 억제한 감정, 수용할 수 없는 감정들을 시를 통해 표

---

22) J. J. Leedy, *Poetry the Healer* (Philadelphia, PA: Lippincott, 1973), p. 10.

현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시 치료자의 도움으로 이러한 과정을 시치료에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성숙과 성장을 촉진하고 개개인의 정체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치료의 원리 중 안전한 방법은 문학이라는 간접적인 매체를 통해 자신의 표현하기 어려운 생각이나 감정, 역동적인 내면세계를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원리를 말한다. 즉 시적도구를 사용하여 비난이나 평가, 수치심을 받지 않고도 자신의 소망이나 정서를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독자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치료의 원리를 활용하여 어떻게 참여자들에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치료의 방법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실제 모델들<sup>23)</sup>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모델은 수용적/처방적 요소(receptive/prescriptive component)로서 치료에 기존의 문학작품을 도입하는 것을 말하며 시치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이다. 시치료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기존의 시를 읽어주거나 읽게 하여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우선 치료자는 시를 사용하기 전에 자신의 반응을 먼저 검토하고 참여자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참여자의 치료목적과 일치되게 시를 선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진로문제로 고민하며 방황하는 고등학교 수험생에게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시 중에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을 활용하여 인생에서 마주치는 선택의 문제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하여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시를 읽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시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을 감동시키는 어떤 특별한 행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을 생각나게 하는 행이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독자들이 특별한 행 또는 이미지에 초점을 두어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독자들은 시적화자와 동일시하여 자신의 느낌과 감정, 혹은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를 읽고 난 후 소집단 활동을 통해 질문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내면의 문제가 구성원들의 공감을 통한 위안을

---

23) Mazza, pp. 17-22. 참조.

주는 정신치료의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시, 「나는 누구인가?」(“Who am I?”)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생의 마지막 순간인 베를린 감옥에서 쓴 시로써 많은 독자들의 공감과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 시는 시적화자인 시인이 바라보는 스스로에 대한 자아상과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그 간격의 차이와 진정으로 되고 싶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내포하고 있다.<sup>24)</sup> 따라서 이 시를 독자들에게 읽도록 한 후에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았으면 좋겠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독자들의 자아 성찰적 태도를 이끌어내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모델은 표현적/창조적 요소(expressive/creative component)로서 치료에 독자의 글쓰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대표적인 종류로는 창의적 글쓰기와 저널쓰기가 있다. 우선, 창의적 글쓰기의 사용은 평가와 치료를 위해 유용한 기법이며, 이를 통해 독자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실제로 글쓰기는 자유주제로 쓸 수도 있고 혹은 미리 구조화된 것이 제시 될 수도 있으며, 리코(Rico)에 의해서 발전된 창의적 글쓰기 기법인 ‘단어 모으기(clustering)’<sup>25)</sup>와 같은 연상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창의적 글쓰기의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단어 모으기에서는 중심단어 하나를 먼저 정하고 그 단어를 중심으로 자신과 관련된 인물, 장소, 사건, 기억, 감정, 등과 같은 주변 단어들을 이끌어내게 된다. 이러한 연습은 시를 쓸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으며, 독자의 내면세계가 시 쓰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으므로 치유의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시를 쓰도록 이끌어주는 또 다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마음 잇기 프로젝트 (Hand to Hand, Heart and Heart Project)’<sup>26)</sup>가 있다. 독자들에게 먼저 특정 구절들을 칠판에 적어준다(예를 들면, ‘내 손/ 내 눈물들/ 나의 분노/ 내 구름/ 내 날개/ 나 자신/ 주고받다/ 내 마법의 꽃...’). 그 후에 각각의 구절 중 좋아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고 선택한 단어가 시 제목이나 시어가 될 수 있음을

24) 김현희 외, 『상호작용을 통한 독서치료』(서울: 학지사, 2010), p. 288.

25) 한미란, 「인성교육을 위한 운동주 시 교수·학습 방법 연구 -시치료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p. 43. 재인용.

26) 김현희 외, pp. 297-298.

말해준다. 독자들에게 명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시에 적합한 이미지, 느낌 단어들의 음악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운율을 맞추지 않고 시를 쓰도록 한 후 다 썼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시 창작에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완성된 시는 독자들의 내면의 정서를 잘 보여 줄 수 있으므로 시치료의 제재로써 효과적일 것이다.

일기, 여행일지와 같은 저널은 시치료의 또 다른 도구로서 각 개인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저널쓰기를 통해서 독자들은 은밀한 방식으로 표출되기 어려운 내면의 감정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성찰을 통하여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예를 들면, 저널쓰기를 통해서 독자들은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힘든 마음의 상처와 고통스런 감정을 안전한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서가 정화되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세 번째 모델은 상징적/의식적 요소(symbolic/ceremonial component)로서 시치료과정에 은유(metaphors), 의식(rituals), 이야기 들려주기(storytelling)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질적인 의미로서 은유는 정서, 행동, 믿음에 대한 상징 혹은 이미지를 말한다. 은유가 사용된 시를 읽거나 쓰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간접체험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은유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내면세계에 잠재되어 있는 심리적 문제에 직면하도록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sup>27)</sup> 은유는 생명력을 토대로 의미의 변화와 확장, 역동적인 의미를 생성해내며, 일상적인 자아와 잠재적 자아의 통합을 촉진시킨다. 이와 같이 은유는 직관을 통해 생각 너머에 존재하는 진실을 표현하여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치료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치료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sup>28)</sup> 우선, 희망을 사람들의 영혼의 안식처에서 아름답게 노래하는 새에 비유한 디킨슨(Emily Dickinson)의 「희망은 날개 달린 것」(“Hope is the thing with feathers”)이라는 시를 학생들에게 감상하도록 한 후에 희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 시에서 희망은 힘든 인생

27) 이희정, 「중학교 3-1 교과서에 실린 시의 심리치료적 요소 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p. 20.

28) Fox John, 『시(詩)치료』, 최소영 외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p. 74.

의 역경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밝혀주며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것이다.

나아가 교사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제로 한 은유표현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할 수 있다. “희망은 무엇인가? 꽃? 구름? 석양? 아이스크림? 여러분에게 있어서 희망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조별로 의견을 나누게 하여 H, O, P, E로 시작하는 4행시를 지어보도록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sup>29)</sup> 이와 같이 은유를 활용하여 희망을 주제로 시를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내면의 자아와 마주하게 되고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함께 희망적이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한편, 의식이란 문화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 보면, 오랜 세월동안 형성되어 온 것으로써, 사람이 과거를 인식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옮겨가도록 허락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죽음이나 이혼과 같은 부정적인 결말을 수용하도록 돕는 치유의 효과를 지닌다. 특히 의식은 가족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혼 후 재혼가족(step-family)을 위한 새로운 관습을 개발하고 전통을 만들어가는 의식은 공동참여를 통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하도록 도울 수 있으므로 건강한 과도기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가족치료에 있어서 의식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족식사시간의 기도, 기념일 챙기기, 성공을 축하하는 의식, 애완동물이 죽었을 가족끼리 같이 묻어주는 의식<sup>30)</sup>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는 독자가 판타지나 현실에 기반을 둔 이야기를 만들거나 듣는 것을 통해 정서적인 치유적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이야기란 단순한 상징이나 의사전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삶 자체를 구성하는데 관여하는 힘을 지닌다. 또한, 갈등해소의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경험을 이야기로 구성했을 때,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이야기를 토대로 심리치료를 했을 때 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신분석학을 정립한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환자들의 경험을 치료과정에 적극 활용하였는데, 치료 중 행한 모든 작업이 독자 개인의 이야기를

29) Mazza, pp. 185-186.

30) Mazza, p. 22.

듣고 이를 통해 심리상태를 분석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었다.<sup>31)</sup> 독자의 회상을 통한 어린 시절의 꿈과 환상, 무의식, 경험을 통해서 구성된 한편의 이야기는 혼돈되어 있어 불안정한 측면이 많다. 이를 치료자가 현실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로 재구성해 가면서 내담자의 자아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통해서 정신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게 된다.

---

31) 고미영, 『이야기 치료와 이야기의 세계』 (서울: 청목출판사, 2004), pp. 78-80.

### Ⅲ. 시치료와 워즈워스

#### 1. 워즈워스의 시론과 시치료

워즈워스는 콜리지(S. T. Coleridge)와 함께 출판한 『서정담시집』 (*Lyrical Ballads*)의 서문에서 그의 시론을 정립하였는데, 낭만주의의 시발점이 된 이 서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워즈워스의 시세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 워즈워스의 시가 시치료에 적합한 제재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다.

워즈워스 시의 치료적 효과에 대해서는 일찍이 영국의 대표적인 공리주의 철학자인 밀(J. S. Mill)이 그의 자서전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는 워즈워스를 단순하고 소박한 감동을 주는 시인이라고 일컬으며 그의 시를 읽으면 신경쇠약으로부터 회복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자서전 5장에서 밀은 20살 때 자신을 괴롭혀왔던 정신적인 방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연한 계기로 워즈워스의 1815년판 대표시들을 읽음으로써 이러한 방황과 절망스러운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우선적으로 이들 시들은 내가 가장 민감하게 기쁨을 느끼는 감정, 전원적인 대상이나 자연의 풍경에 대한 사랑에 강력한 호소력이 있었다. 이런 전원적인 아름다움이 내가 가지는 힘 속에 워즈워스의 시에서 느끼는 기쁨의 원천이 있었다. 나의 절망적인 감정 상태를 워즈워스의 시가 치유한 원인은 그의 시가 단순히 외부의 자연을 묘사했다기보다는 아름다움에 감동된 느낌의 상태와 느낌이 채색된 생각을 표현했기 때문이었다.<sup>32)</sup>

밀은 워즈워스의 시가 자신에게 정신적 치유력(the healing power)의 기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워즈워스의 시속에 나타난 주체 중심적 시각의 특징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즉, 워즈워스는 시적 대상물에 시인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여 주체자의 시각으로 대상을 묘사하며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을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노래하기보다는 자연

32) 김경순, 「워즈워스의 시에 나타난 이중성」, 『신영어영문학』 12 (1999), p. 36. 재인용.



과의 공감을 통해 대상을 바라보고 느끼는 주체자의 관점으로 자연에 대한 감동을 표현할 때 독자들은 시인의 감정에 전이되어 더 없이 큰 감동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다른 시와 차별화된 워즈워스 시가 갖는 치료적 요소이며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점인 것이다.

『서정담시집』의 서문에 나온 워즈워스의 시론을 살펴보면 그의 시에 내재된 주목할 만한 시치료적 기능 요소들을 찾을 수가 있다. 이를 크게 세부분으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 시치료적 기능 요소는 워즈워스가 시작(詩作)과정을 설명하는 시론 부분에서 드러난다.

시란 강력한 감정의 자연발생적 넘쳐흐름이다. 시는 고요 속에 회상된 정서를 그 근원으로 한다. 그 정서는 일종의 반응으로서 고요함이 서서히 사라질 때까지 숙고되고, 이전까지 숙고의 대상이었던 감정과 유사한 감정이 서서히 산출되어 정신 속에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시 짓기가 시작되고, 이와 유사한 분위기에서 시작(詩作)이 계속된다.<sup>33)</sup>

이 말은 시작(詩作)과정에 대한 시인의 견해로서, 회상을 통하여 반복 음미하고 생각하는데서 심오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과거를 조용히 회상하는데서 오는 “강력한 감정의 자연발생적 넘쳐흐름”이 시적 정서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워즈워스에 의하면, 이와 같은 강력한 감정 자체만을 가지고는 훌륭한 시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반드시 “고요 속에서 회상된 정서”로 변환이 될 때 비로소 시의 탄생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하면서 깊은 사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하인즈와 하인즈베리의 독서치료의 4단계 과정에 적용해보면, “고요 속에 회상된 정서”라는 것은 사색의 과정을 강조하는 고찰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워즈워스는 시를 쓰기 위해서 반드시 고찰이 필요하며, 시적 대상에 대한 숙고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시인 자신과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단계에 도달했을 때 진정한 시적 정서가 표출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작(詩作)의 원리에 따라 시를 쓴 워즈워스의 시 작품을 통해서 독자들은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교훈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

---

33) Abrams, p. 173.



라, 시적 화자의 강력한 감정의 표출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내면의 세계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워즈워스의 시론에 나타난 두 번째 치료적 기능 요소는, 그가 새로운 형태의 시를 시도한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가운데 드러난다.

이 시들에서 내가 스스로 제기한 주요 목표는 평범한 삶에서 사건과 상황들을 택하고, 전체적으로 가능한 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일상 언어를 선택해 그것을 진술하고 묘사하는 것이다.<sup>34)</sup>

즉, 시가 워즈워스가 강조하는 가치 있는 목적을 지니려면 시인은 “평범한 삶에서 사건과 상황들”을 선택하여 이것들을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일상 언어”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시어를 선택할 때도 인위적인 어휘나 세련된 용어보다는 시골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일상어를 사용해야 하며, ‘순수하고 소박한 인간성’을 주제로 한 시들을 가치 있다고 여겼다. 이와 같이 워즈워스가 소박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평범한 일상을 시의 소재로 선택한 이유는 서민들의 삶에서 인간이 보다 더 자연과 쉽게 교감을 이룰 수 있고, 순수한 정서를 유지할 수 있으며, 감정이 더 풍부해 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시적 대상으로서 상류사회의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서민을 선택하고 그들의 일상을 시 속에 담아서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언어로 시를 쓴 워즈워스가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겪는 일상생활의 고통과 보편적 슬픔, 애상이 담긴 생활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시치료의 과정에 적용해본다면, 워즈워스가 시를 통해 그리는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에 독자들은 공감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시적대상에 적극적인 감정전이를 일으켜 자신의 고통의 무게를 시적 대상과 공유하게 됨으로써 내면의 상처가 아물게 되는 치유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5차원 독서치료법의 1단계인 ‘동일시’에 해당한다. 동일시의 과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워즈워스의 대표적인 시에는 추수하는 처녀의 노래 속에 깃든 인간사의 근원적인 고통과 애환을 전원적인 정서와 함께 잘 보여주고 있는 「외로운 추수꾼」(“The Solitary Reaper”)이라는 시가 있다. 독자들은 이 시를 읽는 동안 워즈워스가 추수하는 처녀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느꼈던 감정에 적극

34) Abrams, p. 176.

적인 전이를 일으켜 시적 대상에 더욱 공감하고 동일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정신적 성숙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워즈워스의 시론에 나타난 세 번째 시치료적 기능 요소는 시인의 상상력을 통한 시작(詩作) 과정에서 나타난다.

또한 이것들에 어떤 상상력의 채색을 가하여, 이로써 일상적 사물들이 비범한 방식으로 정신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이 사건과 상황들에서 과시적이지는 않지만 진실하게, 주로 고양된 정신상태에서 우리가 특정한 생각 연상 방식과 관련해 인간 본성의 기본 법칙을 밝혀냄으로써 흥미를 자아내게 만드는 것이다.<sup>35)</sup>

워즈워스는 시의 소재인 일상생활에서 오는 평범한 사건이나 상황에 “상상력의 채색”을 가함으로서 흥미로운 사건이나 상황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워즈워스에게 있어서 상상력은 사물에 대한 감각과 정서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며, 객체를 주체화하고 시인의 내면정신과 외부세계인 자연을 결합하는 정신 능력인 것이다.

상상력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외부 대상물에 대한 단순히 신뢰할 수 있는 모방인 심상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특정 규칙에 의해 지배받는 그러한 외부 대상물에 미치는 마음의 작용과 창작 혹은 시작의 과정을 나타내는 좀 더 중요한 의미의 단어이다.<sup>36)</sup>

이와 같이 워즈워스는 자연 사물이 상상력을 통해 주체자의 시각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시인의 상상력은 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능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갑은 워즈워스의 시를 읽을 때 단순한 지식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시적인 상상력의 정신활동을 통해서 읽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35) Abrams, p. 176.

36) Abrams, p. 176.

자연이나 시는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 된다. 자연이 완성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인이 상상력을 통하여 능동적인 참여성 속에서 자연을 감상하고 이해하듯이 독자도 오로지 상상적인 참여를 통하여만 자연과 같은 위상에 속한 시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 시인이 자연을 보는 방법에 따라 독자도 시를 읽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과 시 사이에는 유기적인 상호관계가 불가능해지면서 시는 단지 인위적인 가공품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sup>37)</sup>

워즈워스의 시 속에 내재된 이러한 상상력은 시치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요소로서, 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시에 대한 해석의 폭을 넓혀 다양한 각도로 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이끌어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인과 독자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소통을 통해 독자들은 시인이 의도하는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고 감수성과 창의성은 물론 더 나아가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체득하게 되어 정서지능을 높일 수가 있다. 이는 하인즈와 하인즈 베리의 독서치료(시치료) 4단계 중에 1단계인 ‘인식’에 해당하는 과정으로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학작품에 대한 독자의 지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따라 치유의 방향도 달라질 수가 있기에 시치료의 가장 첫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서정담시집』의 서문에서 나타난 이러한 세 가지의 시치료적 기능 요소들을 바탕으로 워즈워스는 신고전주의 시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획기적인 낭만주의 시론을 정립하게 되었고, 그의 이러한 시세계는 본고에서 분석할 워즈워스의 대표적인 시 작품 속에 잘 드러나 있다.

## 2. 워즈워스의 자연관과 시치료

최근 들어 생태학적 위기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워즈워스의 자연관을 생태학과 연결시켜서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새로운 흐름으로써 시치료와 워즈워스의 범신론적 자연관의 개념을 연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워즈워스의 자연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형성되어야 하므로 자연관 형성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에 시치료의 기능적인

37) 김종갑, 「Wordsworth의 시에 있어서 이상적인 독자 - 자연과 텍스트의 위상과 관련해서-」, 『영어영문학』 39.1 (1993), p. 22. 재인용.

측면에서 워즈워스의 범신론적 자연관 사상에 접근하여, 이 두 개의 개념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범신론적 자연관이 잘 나타난 워즈워스의 대표적인 시 작품인 「틴턴 사원」을 분석하고자 한다.

워즈워스는 영국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으로서 자연을 시의 소재로 삼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의 강렬한 감정을 표출한 대표적인 자연시인이다. 그의 시 속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자연에 대한 그의 관점은 워즈워스의 어린 시절 자연과의 친교를 통해 형성된 것이므로 그의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자연관 형성의 배경이 된 그의 유년시절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워즈워스는 맑은 호수와 산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자연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인 영국 서북부 컴버리아(Cumbria) 주의 코커머스(Cockermouth)에서 태어났다. 이 곳에서 사는 동안 아름다운 호수지방의 자연이 그의 전 생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8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13세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 그와 그의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결국 워즈워스는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 없이 불행한 유·소년기를 보냈으며, 이로부터 우울감과 고독감을 느낄 때면 아름다운 산과 강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고 한다. 자연은 그에게 있어서 벗이자, 스승이며 어버이였던 것이다. 자연과의 교류만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던 그는 자연이 베푸는 정신적 치유력에 힘입어 자연 속에서 기쁨과 환희를 느낄 수 있었다. 즉, 자연 속에서 고독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치료할 수 있는 감정을 체험하였으며, 자연을 통한 깊은 사색은 그로 하여금 시시각각 변하는 온갖 형상들을 예리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심안(inward eye)을 갖도록 해주었다. 이러한 자연과의 친교는 워즈워스의 기억 속에 깊숙이 내재되어 그의 시적 영감의 근원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하트먼(Geoffrey H. Hartman)은 워즈워스가 소년시절에 접한 자연이 시인으로서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보았다.

워즈워스가 14세 때 평범한 나뭇가지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나타난 운곽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 시인으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그가 70대가 되어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이곳이 최초로 시적감흥을 일으킨 장소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곳은 호크셰드(Hawkshead)와 엠블사이드(Ambleside) 중간

이었으며 나도 무척 즐거웠다.”<sup>38)</sup>

또한, 다비셔(H. Darbishire)는 그가 자연 속에서 성장하면서 받은 영향력이 자연 시인으로서의 그의 시적 삶을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워즈워스의 시적 삶은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살아 있는 자연과 친밀했던 한 소년으로, 숲과 들판을 거닐던 방랑자로 성장했다. 그는 화려한 시구에 환희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시인의 작품에 존재하는 위대한 자연으로부터의 심오한 기쁨의 영원한 감촉을 받았다.<sup>39)</sup>

워즈워스는 자연과 인간 모두는 영혼을 갖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통해서 인간의 본래의 아름다움은 물론 생명과 경건한 마음,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믿었다. 자연과 함께 보낸 그의 어린 시절은 그에게 시작(詩作)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범신론적 관점을 갖게 만든 기본 바탕이 되었다. 이 범신론적 자연관의 입장에서, 그는 자연과 인간 내부의 정신에 신성한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인간은 생명력을 지닌 자연을 사랑함과 동시에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한다는 도덕적 관점을 그의 시 속에 내포하고 있다.<sup>40)</sup> 결론적으로 워즈워스는 우리가 신에게서 구하는 도덕적인 힘, 그리고 인간을 치유해주는 치유력을 자연에서 찾았고 그 속에서 평온과 위안을 얻었던 것이다.

워즈워스는 자연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범신론자였으며 셰이커트(H. C. Schweikert)는 워즈워스의 자연관에 드러난 정신적 성숙의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sup>41)</sup> 여기서 1단계는 걱정기(The Period of blood), 2단계는 감각기(The Period of senses), 3단계는 상상기(The Period of Imagination), 마지막 4단계는 정신기(The Period of soul)이다. 1단계인 걱정기는 소년시절에 자연에서 맘껏 뛰놀면서 육체적으로 자연을 즐기고 쾌락과 환희를 느끼는 시기를 말하며, 2단계인 감각기는 사춘기를 막 지나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대한 열

38) Geoffrey H. Hartman, "Nature and the Humanization of the Self in Wordsworth," *English Romantic Poets: Modern Essays in Criticism*, ed. M. H. Abrams (New York: Oxford UP, 1975), p. 123.

39) Helen Darbishire, *The Poet Wordsworth* (London: Longman Green & Co.Lt., 1958), p. 11.

40) 김광태, 「"Tintern Abbey"에 나타난 William Wordsworth의 자연관」,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p. 51-52.

41) H. C. Schweikert, et. al., *Adventures in English Literature* (New York: Harcourt, 1932), p. 478.

정을 느끼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기이다. 또한, 3단계인 상상기는 지금까지의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에 사색이 깃들게 된 상태로써, 영(spirit)에 대한 자연의 고요한 영향을 이해하는 시기이고 마지막으로 4단계인 정신기는 정신적 존재로서의 자연과 깊은 사상적 공유를 하는 시기<sup>42)</sup>이다.

위 단계들 중에 4단계에 나타난 자연관이 범신론적 관점에 해당된다. 즉, ‘범신론’이란, 만물에 생명이 깃들여 있다는 입장으로, 신은 모든 것 안에 있고 모든 것이 신이라고 보는 신념을 말한다. 워즈워스는 자연과 인간에게 통일적으로 흐르는 영기를 느꼈으며 그에게 이 영기는 인간의 한계를 넘게 하는 구원의 힘이며 종교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범신론적 자연관을 시에 적용시켜 그는 자연 속에 영혼이 있음을 보여주고, 독자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워즈워스는 자연 속에 내재하는 정신적인 힘이 생물과 무생물 모두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서로 밀접하게 얽혀서 짜여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워즈워스의 범신론적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상호과정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생태학적 관점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워즈워스의 자연은 하나의 생명이고, 상상력의 세계에서 인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과 도덕적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결국 신령한 영의 존재가 자연과 인간적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모든 생명체와 융화되어 작용한다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시인은 우주만물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속에 하나의 거대한 신적 존재가 있다는 확신으로 자신의 범신론적 자연관을 그의 시 작품 속에 투영하고 있다.

자연은 인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스승이며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한 워즈워스는 그의 자연사랑을 인간사랑으로 발전시켜 결국 인간을 불멸한 영혼의 소지자로 믿게 된다. 이러한 시각은 모든 살아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인간에 대한 경외심과 생명존중사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존중, 공감, 배려, 소통과 같은 인성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치덕목과 인성역량요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

42) 문매순, 「『서정 답시집』에 나타난 워즈워스의 자연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 52.



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신론적 자연관이 드러나 있는 워즈워스의 자연시를 영어 교과 시간에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시치료 과정에 활용한다면 위에 제시한 인성 역량 요소들을 학생들이 영어 수업을 통해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이 바로 본 논문에서 착안한 워즈워스의 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일선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자살, 왕따, 학교폭력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은 모두 생명경시풍조에서 출발했다고 여겨진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 더 나아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생명체에 대한 경외심과 생명 중심의 평등사상을 갖는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1798년에 출판된 『서정담시집』에 끝 작품으로 실렸던 「틴턴 사원」<sup>43)</sup>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으며, 모든 워즈워스의 사상과 신념을 이해하는 데에 중심이 되는 시이다. 또한 자연관에 대한 정신적인 성장과정을 단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서정시이므로 시치료적 요소와 접목될 수 있는 워즈워스의 범신론적 자연관의 개념을 살펴보기에 가장 적합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틴턴 사원」은 5년 만에 와이(wye)강을 다시 찾아 마음의 고뇌를 치유하고 생의 위안을 얻는 과정을 보여주는 시로서, 이 시의 내용적인 측면으로만 별도로 봤을 때도, 시치료의 과정과 연결될 수 있는 맥락이 존재한다. 즉, 워즈워스는 「틴턴 사원」에서 자연을 통해 내면세계가 치유되고 정신적인 성숙에 이르는 과정을 시의 맥락 안에 잘 담아내고 있으므로 이 또한 시치료의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된다. 따라서 시치료의 관점과 내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치료적 요소와 범신론적 자연관이 잘 드러난 부분을 「틴턴 사원」이라는 워즈워스의 대표적인 시 작품<sup>44)</sup>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시작(詩作)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워즈워스는 1793년, 그의 나이 23세 때 처음 웨일즈(Wales) 지방의 틴턴 사원을 방문한 후, 1798년에 여동생 도로시(Dorothy)와 함께 다시 그곳을 찾아가서 4~5일 동안 머물게 된다. 이 시는 재방문했을 때

43) 원제는 “Lines Composed a Few Miles above Tintern Abbey on Revisiting the Banks of the Wye during a Tour”로 편의상 앞으로는 「틴턴 사원」으로 칭하겠음.

44) 이 논문에서 워즈워스 시의 본문은 그의 시 전집(*The Collected Poems of William Wordsworth*)에서 인용. 「틴턴 사원」은 행수만 표기함.

와 5년 전에 방문했을 때의 시인의 기억을 회고하면서 자연에 대한 깊은 명상을 노래하고 있는 시로써, 위즈워스는 자연을 떠났을 때조차도 아름다운 자연을 매순간 떠올리며 자연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랜 부재를 통해  
이 아름다운 형상들은  
나에게 장님 눈에 비친 풍경은 아니었다.  
그러나 종종 외로운 방 안에서  
마을과 도시의 소음 속에서, 나는 지루한 시간에  
피 속에서 그리고 심장을 따라 느끼는 감미로운 감각들을  
그것들에서 얻었다.  
심지어 내 더욱 순수한 정신 속으로 스며들어  
고요히 되살아나는 감각들을  
기억되지 않는 즐거움의 감정들 또한  
아마 그런 것들은  
선량한 사람의 삶의 최선의 부분에  
그의 작고, 이름 없는 기억되지도 않는 친절과 사랑의 행위에  
결코 가볍거나 사소하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These beautiful forms,  
Through a long absence, have not been to me  
As is a landscape to a blind man's eye:  
But oft, in lonely rooms, and 'mid the din  
of towns and cities, I have owed to them,  
In hours of weariness, sensations sweet,  
Felt in the blood, and felt along the heart:  
And passing even into my purer mind  
With tranquil restoration:--feeling too  
Of unremembered pleasure: such, perhaps,  
As have no slight or trivial influence  
On that best portion of a good man's life,  
His little, nameless, unremembered, acts  
Of kindness and of love.

(22 - 35)

오랜 부재로 인해 텅텅 사원의 모습을 5년 만에 다시 감상하게 되었지만, 시인의 눈에 비친 이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은 과거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 존재하는 “장



님 눈에 비친 풍경”이 아닌, 내 안에 살아있는 생동하는 감각이며 치유의 원천이었다. “외로운 방안에서/ 마을과 도시의 소음 속에서” 지치고 고독감을 느낄 때마다 시인은 종종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감미로운 감각”들을 내면에 일깨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워즈워스는 과거 아름다운 자연의 형상들을 상상력을 통해서 느끼고 인식하며 현실의 고통과 지친마음을 치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치료적 관점에서 볼 때 독자들이 시를 읽거나 쓰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듯이, 워즈워스에게 있어서 자연은 삶의 고단과 지친 일상을 치유해주는 한편의 시와 같은 것이다. 또한 “아마 그런 것들은/ 선량한 사람의 삶의 최선의 부분에/ 그의 작고, 이름 없는 기억되지도 않는 친절과 사랑의 행위에/ 결코 가볍거나 사소하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라는 구절은 이러한 자연이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인격전체에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무어맨(M. Moorman)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대한 기억이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워즈워스가 감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sup>45)</sup>, 자연 속에서 느끼는 기쁨의 정서가 인간을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이끄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셰이커트의 4단계 과정 중에 3단계인 ‘상상기’에 해당하는 단계로써, 인간의 삶 속에서 사색과 회상을 통한 자연의 의미를 찾는 단계이다. 2단계인 ‘감각기’가 제일 처음 텃밭 사원을 방문해서 자연에 대한 기쁨과 환희를 느꼈던 5년 전의 모습이라면, 5년 후의 두 번째 방문에서는 도시생활의 고독과 권태로움 속에서 자신을 위로해주며 치유해주는 자연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즉, 자연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고요한 영향을 끼쳐 인간을 도덕적으로 승화시켜주는 것이다. 한 단계 성숙한 자연인식으로 인해 통찰력을 가지고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며 회상을 통한 내면의 상상력의 능력을 획득하는 시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한편, 워즈워스는 자연이 주는 하나의 선물로서 한층 더 숭고한 정신인 자연으로부터 축복받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

---

45) Mary Moorman, *William Wordsworth, A Biography: The Early Years, 1770-1803* (Oxford: Oxford UP, 1957). p. 403.

이에 못지않게 나는 믿는다.  
 그들에게 더욱 숭고한 모습을 띠  
 아마도 또 다른 선물을 빚졌다고: 축복받은 기분을,  
 신비의 무게와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무겁고 고단한 짐이 가벼워진다.  
 애정이 부드러이,  
 우리를 인도하여, 마침내는 이 육신의 숨결과  
 우리 인간 혈액의 운동조차 정지되어,  
 우리가 육체에서 잠이 들고, 살아 있는 영혼이 된다.  
 저 고요하고 축복받은 심경 속에서;  
 조화의 힘과 환희의  
 깊은 힘에 고요해진 눈으로  
 우리는 만물의 생명을 들여다본다.

Nor less, I trust,  
 To them I may have owed another gift,  
 Of aspect more sublime; that blessed mood,  
 In which the burthen of the mystery,  
 In which the heavy and the weary weight  
 Of all this unintelligible world,  
 Is lightened:-- that serene and blessed mood,  
 In which the affections gently lead us on,--  
 Until, the breath of this corporeal frame  
 And even the motion of our human blood  
 Almost suspended, we are laid asleep  
 In body, and become a living soul:  
 While with an eye made quiet by the power  
 Of harmony, and the deep power of joy,  
 We see into the life of things.

(35 - 49)

자연이 주는 “고요한 축복 받은 심경”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결국 우리는 조화의 힘과 기쁨의 힘에 의해 고요해진 눈으로 사물의 생명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위즈워스가 말하는 이러한 황홀경의 경지는 범신론적 자연관의 관점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즉, 자연을 통해서 더 원숙한 사상적 기쁨을 느끼며 자연 속에 깃든 신의 존재를 감지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 시절은 지나갔다.  
 그 모든 고통스런 즐거움은  
 그 모든 어지러운 황홀감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이런 상실에 대해 나는 낙담하거나 슬피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다른 선물들이 잇달았다.  
 나는 풍성한 보상이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철없는 젊은 시절과는 달리  
 자연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자주 격렬하지도 귀에 거슬리지도 않는  
 허나 마음을 맑게 하고 자제하는 풍성한 힘을 지닌  
 인간미 흐르는 고요하고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That time is past,  
 And all its aching joys are now no more,  
 And all its dizzy raptures, Not for this  
 Faint I, nor mourn nor murmur; other gifts  
 Have followed; for such loss, I would believe,  
 Abundant recompense. For I have learned  
 To look on nature, not as in the hour  
 Of thoughtless youth; but hearing oftentimes  
 The still sad music of humanity,  
 Nor harsh nor grating though of ample power  
 To chasten and subdue.

(85 - 93)

워즈워스는 5년 전과는 달리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가 한층 더 고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즉, 5년 전에는 열정을 가지고 자연과 교감하며 자연을 통해 단순한 감각적 기쁨을 느꼈다면, 지금은 그런 소년기의 걱정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인간미 흐르는 고요하고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자연을 바라보는 원숙한 자연관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연관을 통해 워즈워스는 또한 만물 속에 살아 움직이는 영(soul)이 존재한다는 신앙을 확신하게 된다. 다음 행은 이러한 범신론적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고양된 사색의 환희로 나를 설레게 하는 존재를  
 보다 더 깊게 스며들어 있는  
 그 무엇에 대한 숭고한 의식을,

그 존재의 안식처는 저무는 태양빛,  
 둥근 대양과 살아 숨 쉬는 공기이며,  
 푸른 하늘이며,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모든 것들에 깃들여 있다.  
 모든 생각하는 사물들을, 모든 사고의 대상들을 추진시키고  
 모든 사물 속에 흐르는 운동력과 열을.

And I have felt  
 A presence that disturbs me with the joy  
 Of elevated thoughts; a sense sublime  
 Of something far more deeply interfused,  
 Whose dwelling is the light of setting suns,  
 And the round ocean and the living air,  
 And the blue sky, and in the mind of man:  
 A motion and a spirit, that impels  
 All thinking things, all objects of all thought,  
 And rolls through all things.

(93 - 102)

워즈워스는 고양된 생각의 기쁨으로 자신을 설레게 하는 존재가 자연 속에 내재해 있음을 감지하게 되는데 그 존재는 한층 더 숭고한 느낌을 주는 존재이며, 모든 사물의 중심을 관통하여 구르며 생각할 줄 아는 모든 사물과 생각의 모든 대상을 그러하도록 추진시키는 운동이며 정신이다. 즉, 자연과 영혼은 하나이며, 신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에 내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셰익스피어의 정신적 성장의 4단계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정신기’에 해당하는 단계로써, 시인은 만물에 내재해있는 “모든 사물 속에 흐르는 운동력과 열”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정신의 힘은 만물 속에, 살아있는 생명체든, 아니면 무생명체이든, 살아 움직이는 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워즈워스는 만물이 하나의 생명체라는 범신론적 신앙을 보여주며,<sup>46)</sup> 더 나아가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6) 김경순, 「워즈워스의 시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영어영문학연구』 29.3 (2003), p. 11.

레이더(M. Rader)는 스피노자(Spinoza)의 범신론이 「틴턴 사원」의 이 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든 것은 외부의 물질적 형태뿐 아니라 내부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스피노자에게서 일원론적 범신론을 발견한다. 여기서 범신론이란 신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재하는 모든 일반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워즈워스가 스피노자에게서 끌어내었던 아니든 그의 시에 반영되어 있다. 그의 자연에 대한 범신론적 견해는 「틴턴 사원」의 이 부분에 가장 완벽히 표현되어 있다. 47)

다시 말해서, 스피노자의 일원론적 범신론에서 신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재적 존재이며 이러한 철학적 사고가 가장 잘 반영된 시가 「틴턴 사원」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워즈워스에게 있어서 자연은 신이 자기의 의지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실체이며, 감각적인 기쁨과 도덕적인 교훈을 주어 인간의 선한 행동을 이끄는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해주며 보편적 진리를 일깨워 주는 하나의 선물인 것이다.

### 3. 워즈워스 시의 시치료적 요소

우선 시치료적 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 영시를 선택하기 위해 작가를 먼저 선정하였는데, 훌륭한 작품을 쓴 많은 시인 중에서 워즈워스의 시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시치료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범신론적 자연관과 시치료의 원리에 적용될 수 있는 요소가 작품 속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워즈워스는 주로 자연을 소재로 시를 썼기 때문에, 그의 시는 영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비교적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지니고 있다. 또한 ‘평범한 삶으로부터 사건들이나 상황들’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일상 언어’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형식면에서도 어렵지 않게 읽혀질 수 있으므로, 영어교과시간에 시교육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나아가 인

---

47) Melvin Rader, *Wordsworth: A Philosophical Approach* (Oxford: Clarendon Press, 1968), p. 136

성교육차원에서 시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깨달음이나 교훈적인 메시지, 혹은 인성요소를 상당부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워즈워스는 자신의 시에서 ‘상상력의 색채’를 더하여 일반적인 일들이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표현하였기 때문에 학생들 내면의 감수성과 상상력을 풍부하게 자극하여 창의력을 신장시키기에 적합한 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틴턴 사원」 이외 추가적으로 워즈워스의 대표적인 시 작품 5편을 더 선정하여 시 속에 나타난 시치료적 요소를 분석해 볼 것이다. 선정된 시는 「무지개」(“The Rainbow”), 「빠꾸기에게」(“To the Cuckoo”), 「나는 구름처럼 홀로 헤매었네」(“I Wandered Lonely as a Cloud”), 「이른 봄에 지은 시」(“Lines Written in Early Spring”), 그리고 「그녀는 인적 없는 곳에 살았네」(“She Dwelt Among the Untrodden Ways”)이다.

이러한 5편의 시에 나타난 워즈워스의 범신론적 자연관과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시치료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우선 시치료적 관점을 가지고 워즈워스 시 텍스트의 배경지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워즈워스의 범신론적 자연관 혹은 시치료의 원리나 방법을 적용하여 워즈워스의 시에 나타난 시치료적 요소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즈워스의 시를 배움으로써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는 인성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제언하고자 한다.

처음으로 분석할 시는 하늘의 무지개를 보고 느끼는 감상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로써, 그의 창작의 절정기인 32살에 쓴 가장 위대한 작품 중의 하나인 「무지개」이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레느니,  
 내 삶이 시작된 그 때도 그랬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렇거늘  
 이 몸이 늙어서도 그러할지니,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게 해 주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건대 나의 삶 하루하루가  
 자연의 경건함으로 맺어지길.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So was it when my life began:  
 So is it now I am a man:  
 So be it when I shall grow old,  
 Or let me die!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And I could wish my day to be  
 Bound each to each by natural piety.

화자는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은 설레느니” 만일 더 이상 무지개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음이 더 낫다고 말하며 인간의 삶이 계속해서 순수함을 이어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순수함을 잃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때 더욱 가치 있는 숭고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교훈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속적이고 인위적인 삶을 영위하며, 자신의 꿈과 동심의 세계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은 이러한 순수성을 추구하며 살아감으로써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된다.

시적 화자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존재로 가정하고, 동심의 세계로 안내하는 매개체로서 무지개가 주는 아름다움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경이로움은 대자연에 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어릴 적 무지개를 보면서 느꼈던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리틀데일(K. V. Littledale)은 워즈워스의 모든 시의 특성 중 가장 뛰어난 점이 바로 이러한 “자연의 경건함”에 있다<sup>48)</sup>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윌리엄스(Charles Williams)는 “일상적인 일들 중에 기적처럼 일어나는 무지개와 같은 자연 현상은 어른이 된 그를 어린 시절로 묶어 놓는 신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sup>49)</sup>라고 말하고 있다.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점점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잃고 세속적이고 인위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죄를 짓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사회부적응자 혹은 학교부적응 청소년들

48) K. Velin Littledale, *Wordsworth : A Philosophical Approach* (Oxford : Oxford UP, 1967), p. 158.

49) Charles Williams, "Wordsworth," *English Romantic Poets*, ed. M. H. Abrams (New York: Oxford UP, 1973), p. 108.



에게 이 시를 시치료의 제재로 사용하여 지도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 시의 마지막 두 행에 보면 시적화자인 워즈워스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한 생각을 표출하고 있다. “바라건대 나의 삶 하루하루가/ 자연의 경건함으로 맺어지길.” 이 두 행에서 헤닝어가 제시한 시치료의 원리 중에 환기방법과 카타르시스의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즉,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한 감정이나 생각을 시 창작을 통해 표출함으로써, 속이 후련해지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구절을 이용해서 시치료의 방법으로 사용할 때 독자들에게 먼저 이 시를 감상하게 한 후 표현적/창조적 요소 중에 창의적 글쓰기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소망을 직접 표출해보도록 지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바라건대 나의 삶 하루하루가/ \_\_\_\_\_ 하길.” 와 같은 구절을 제시해주고 자유롭게 쓰도록 지도한 후 완성되면 독자들 간의 발표를 통해 직접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독자들은 마음이 정화되고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에는 어른이 되어 순수성을 상실해 가는 현대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잘 드러나 있는데, 워즈워스는 자연이 주는 기쁨을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자연의 경건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독자들에게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를 통해 독자들은 워즈워스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본받을 수 있고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 현실에 쫓겨 잃어버렸던 진정한 자아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시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연에 대한 경건한 시적화자의 태도를 배울 수 있고, 어른이 되어서도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아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학업부담과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인해 정서가 메말라가는 청소년들에게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이 무의식에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다면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미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한 단계 더 성장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키울 수 있는 인성요소에는, ‘자기통제력’, ‘자기동기화 능력’, ‘존중감’, ‘절제’, ‘판단능력’, ‘행동실천력’ 등이 있다.

두 번째로 분석할 시는 「빠꾸기에게」로서 여기서 빠꾸기는 시인에게 소망이고 사랑이며, 무지개와 같이 꿈 많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게 해주는 매개체로서 영원한 자연의 상징을 나타낸다.

오, 즐거운 새(新) 길손이여! 전에 들은 네 울음소리  
지금 또 들으니 반갑구나  
오, 빠꾸기여! 너를 불러 새라 부르라  
방황하는 목소리라 부르랴?

풀밭에 누워  
두 마디씩 이어지는 네 소리를 듣는다.  
언덕에서 언덕으로 순식간에 멀리  
혹은 가까이 흐르는 것 같구나.

골짜기에겐 한낱  
햇빛과 꽃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넌 나에게 꿈 많은 시절의  
이야기를 실어다 준다.

참 잘 왔구나, 봄의 귀염둥이여!  
아직도 너는 나에게겐 새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신비.

어린 시절 내가 귀 기울였던  
바로 그 소리.  
내 그 소리를 듣고 덩불과 나무와 하늘을  
사방으로 두리번거렸었지.

내 너를 찾아 숲과 풀밭을  
얼마나 헤맸던가.  
그럴수록 너는 언제나 희망과 사랑,  
늘 그리워했지만, 한 번도 눈에 띈 적이 없다.

지금도 네 소리에 귀 기울인다.  
들판에 누워  
그 소리 들으면  
또 다시 옛 황금시절이 떠오른다.

오, 즐거운 새여!  
우리가 내딛는 이 땅이  
네게 어울리는 집인 양  
꿈같은 요정의 나라로 보이는 구나!

O BLITHE New-comer! I have heard,  
I hear thee and rejoice.  
O Cuckoo Shall I call thee Bird,  
Or but a wandering Voice?

While I am lying on the grass  
Thy twofold shout I hear:  
From hill to hill it seems to pass,  
At once far off, and near.

Though babbling only to the Vale,  
Of Sunshine and flowers,  
Thou bringest unto me a tale  
Of visionary hours.

Thrice welcome, darling of the Spring!  
Even yet thou art to me  
No bird, but an invisible thing,  
A voice, a mystery;

The same whom in my school-boy days  
I listened to; that Cry  
Which made me look a thousand ways  
In bush, and tree, and sky.  
To seek thee did I often rove  
Through woods and on the green;  
And thou wert still a hope, a love;

Still longed for, never seen.

And I can listen to thee yet;  
Can lie upon the plain  
And listen, till I do beget  
That golden time again.

O blessed Bird! the earth we pace  
Again appears to be  
An unsubstantial, fairy place;  
That is fit home for Thee!

이 작품에서 시인은 뻘꾸기에게 함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연에서는 “유쾌한 새 길손”과 “방황하는 목소리”에 비유하고 있고, 네 번째 연에서는 “봄의 귀염둥이”,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신비”, 마지막으로 제 6연에서는 시인이 그리는 “소망”과 “사랑”에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함축적 의미는 시인이 상상의 채색을 가함으로서 재탄생된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사실에 근거한 해석이 아닌 작품의 흐름 속에서 시인이 새롭게 부여한 함축적 의미를 상상하여 시를 감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자연은 워즈워스에게 단지 눈으로 관찰되는 정지된 수동적 대상이 아닌 살아 있는 유기체였다. 즉, 상상력을 통해서 시인은 자연을 생명체로 여기고 자연과의 친교를 지속하며, 자연으로부터 삶의 기쁨과 도덕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sup>50)</sup>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거대한 통합의 세계는 이러한 상상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정신과 자연 사물간의 상호 관련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워즈워스는 사물을 수동적으로 지각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상을 창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시인의 느낌, 생각 및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워즈워스의 내면의 눈이란 대상을 향해 열린 눈이 아니라 시인 자신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으로, 시인이 보고자하는 대상은 “루시”, “무지개” 혹은 “뻘꾸기”의 객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시인의 마음의 눈을 통해서 보이는 시인 스스로의 감동이며 가슴의 울렁임인 것이다. 사실 감동이란

50) 정현진, 「영시를 활용한 영어수업안 연구-워즈워스의 자연시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p. 18.

눈에 보이든 혹은 보이지 않든, 시적 대상을 시인 내면의 내적공간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위즈워스의 내적공간에서 감동의 손길이 닿는 순간 모든 대상들이 새롭게 재탄생<sup>51)</sup>하게 된다.

「빠꾸기에게」와 같이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시를 선정하여 이를 시치료의 제재로써 활용한다면, 창의력은 물론, 감성지능 요소인 감성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동기화 능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은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교육이 아닌 이론과 암기 중심의 지식정보 습득을 위한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영어수업시간에 문법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영시라는 텍스트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면 영어교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인성교육의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누구나가 인생에서 한번쯤은 소중하게 빛났던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혹은 그 순간의 기억을 회상하며 자신의 현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는 한다. 이 시에 등장하는 빠꾸기는 시적화자로 하여금 인생의 황금시절(golden time)을 떠올리게 만드는 매개체이다.

예를 들어 빠꾸기는 새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신비로운 것으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겨 주고 과거와 현재를 잘 융화시켜 지구를 환상의 성분을 구성하는 비현실적, 동화 같은 장소가 되게 한다.<sup>52)</sup>

세 번째 연에서 “넌 나에게 꿈 많은 시절의 / 이야기를 실어다 준다.”와 일곱 번째 연에서 “들판에 누워/ 그 소리를 들으면/ 또 다시 옛 황금시절이 떠오른다.”라는 구절에서 보면, 빠꾸기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시인은 자신의 꿈과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던 과거의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순간의 기억을 떠올리며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서는 비단 시인만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정서는 아닐 것이다. 누구나가 과거의 소중했던 시절, 꿈 많은 시절을 그리워하며 추억에 젖어들 때가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에는 젊은 시절에 대한 회상과 동경이라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가 담겨 있으므로 헤닝어가 제시한 시치료의 원리 중 위안을 주는 정신치료의 원리에 적용해서 시치

51) 김종갑, 『위즈워스 삶으로서의 문학』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94), pp. 45-46.

52) Rader, p. 136

료를 시도할 수 있다. 독자들은 이 시를 감상함으로써 자기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러한 보편성을 깨닫게 됨으로써 용기도 얻고 시로부터 위안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 시를 영어교과 시간에 시치료의 방법을 활용하여 적용해보자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먼저 시를 감상하게 한 후, 상징적/의식적 요소 중에 은유를 활용하여 직접 시를 창작해보도록 지도함으로써 학생들 내면의 심리적인 정서나 태도가 드러나도록 할 수 있다. 우선, 교사들은 이 시에서 등장하는 뻐꾸기와 같이 학생들 각자가 어린 시절의 소망과 사랑을 떠오르게 만드는 대상물을 하나 정하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나서 그 대상물을 중심단어로 적은 후에 단어모으기 기법을 이용하여 연상법을 통해 중심단어와 연결되는 단어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도록 이끌어 준다. 학생들에게 연상된 단어들을 활용하여 중심단어를 다양한 사물에 비유하면서 시를 창작해보도록 지도한 후에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의견을 나누도록 단계적인 활동 방안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학생들은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고, 어린 시절 잊고 있었던 본연의 꿈을 다시 인지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더욱더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에서 뻐꾸기는 시인에게 있어서 소망이고 사랑이며 늘 그리워하며 추구하려고 하는 꿈같은 존재로 상징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를 가지고 시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 각자가 꿈과 희망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보도록 지도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자 하는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꿈이 있다면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있고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의 꿈을 반 친구들 모두와 공유하게 될 때, 친구들 간의 관계성 욕구가 높아지고 친밀도가 높아져서 원만한 대인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도를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인성요소에는 ‘긍정적 태도’, ‘자신감’, ‘소통능력’, ‘공감능력’, ‘지혜’, ‘용기’, ‘바른 생활습관’ 등이 있다.

세 번째로 분석할 시는 워즈워스의 시 중에서 「수선화」(“The Daffodils”)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는 「나는 구름처럼 홀로 헤매었네」이다.

나는 구름처럼 홀로 헤매었네  
골짜기와 언덕 위로 높이 떠도는  
구름처럼 외로이 헤매이다  
문득 나는 보았네  
한 무리 금빛 수선화가  
호숫가 나무 밑에서

미풍에 하늘하늘 춤추는 것을.

은하수에서 빛나며  
반짝거리는 별들처럼  
물가를 따라  
끝없이 즐지어 피어있는 수선화,  
무수한 꽃송이가  
홍겹게 고개 까딱이며 춤추는 것을 바라보았네.

그 곁에서 물결도 춤추었으나  
반짝이는 물결은 수선화의 기쁨을 따르지 못했네.  
이렇게 즐거운 무리들과 함께 시인이 어찌 흥겹지 않으리  
나는 지켜보고 또 보았지만 그 정경 내게  
얼마나 보배로운지 미처 몰랐었네.

이따금 한가로이 혹은 생각에 잠겨  
자리에 누워 있을 때면  
고독의 축복인 마음의 눈에  
수선화들이 반짝이네.  
그럴 때면 내 가슴 기쁨에 넘쳐  
수선화와 함께 춤을 추네.

I wandered lonely as a cloud  
That floats on high o'er vales and hills,  
When all at once I saw a crowd,  
A host of golden daffodils;  
Beside the lake, beneath the trees,  
Fluttering and dancing in the breeze.

Continuous as the stars that shine  
And twinkle on the milky way,  
They stretched in never-ending line  
Along the margin of a day:  
Ten thousand saw I at a glance  
Tossing their heads in sprightly dance.

The waves beside them danced but they  
Out-did the sparkling waves in glee:  
A poet could not but be gay  
In such a jocund company:  
I gazed—and gazed—but little thought  
What wealth the show to me had brought:



For oft, when on my couch I lie  
 In vacant or in pensive mood,  
 They flash upon that inward eye  
 Which is the bliss of solitude;  
 And then my heart with pleasure fills,  
 And dances with the daffodils.

이 시의 시작(詩作)의 배경은 워즈워스가 누이동생 도로시(Dorothy)와 함께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문득 금빛 수선화 무리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시는 그 때 보았던 광경을 2년 후 회상하며 쓴 시로 “좋은 시는 강력한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로”이며 “고요 속에 회상된 정서”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선화를 본 경험에 대한 회상을 통해서 상상력을 가지고 한편의 시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1805년 4월 15일, 누이동생 도로시는 그래스미어 일기(Grasmer Journals)에서 그 당시 본 수선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수선화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들은 이끼 낀 돌들 사이에서 자랐다. 몇몇은 약해서 마치 베개를 벤 듯 돌들 위에 머리를 두고 있었고, 나머지는 강 위로 불어오는 바람에 웃는 듯 머리를 끄덕이고 있었다. 수선화들은 기쁨에 넘쳐 반짝이는 듯 보였다.<sup>53)</sup>

이 시에서는 수선화를 보면서 벅찬 기쁨을 느낀 화자의 정서가 “sprightly”, “gay”, “glee”, “jocund” 그리고 “bliss”와 같은 단어들을 통해 잘 표출이 되어 있다. 워즈워스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미를 감상하고 관조하는 데에서 큰 기쁨과 위안을 얻으며, 훗날 우울하거나 삶에 지칠 때 수선화를 만났던 이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의 치유를 받게 된다. 산업화로 인해 인류의 삶은 문명의 혜택을 입어 육체노동에서 해방되었으나, 그와 반대로 정서적인 불안과 고독으로 인해 인류는 고통 받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인은, 대자연과의 만남과 친교를 통한 기쁨으로부터 현대인의 병인 고독을 치유<sup>54)</sup>할 수 있음을 이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워즈워스가 대자연으로부터 느끼는 이러한 기쁨의 감정은 인간과 자연이 교

53) Frederick A. Pottle, “The Eye and the Objects,” *The Poetry of Wordsworth: Romanticism and Consciousness*, ed. Harold Bloom (New York: W. W. Norton & Co, 1970), p. 276.

54) 윤옥현, 「William Wordsworth의 범신론적 자연관」,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p. 29.

감을 이룰 때 생기는 한층 숭고하고 도덕적인 것으로써, 그의 시 작품 속에 잘 나타나 있다. 「틴틴 사원」의 “인간미 흐르는 고요하고 슬픈 음악”이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워즈워스의 시에는 경험에 입각한 개인적인 도덕성의 추구하고 탐색이 깊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대중은 워즈워스를 단순히 시인으로서라기보다는 존경받는 도덕주의자나 철학자로서 기억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색채가 잘 드러나는 워즈워스의 시들을 시치료의 제재로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교사들은 워즈워스의 시를 수업시간에 감상하도록 지도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키우고 바람직한 인성역량을 갖추도록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구름처럼 떠돌다 한 무리의 금빛 수선화가 춤추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자연의 일부인 수선화는 마치 살아서 인간처럼 움직이는 생명력을 지닌 것으로서 묘사되고 있으며, 시인은 수선화와 교감을 하며 자연으로부터 더없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 첫 번째 연에서 처음 수선화를 마주했을 당시에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로운 광경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으나, 시간이 흘러 사색을 통해 고요 속에서 회상된 정서와 마주했을 때, 워즈워스는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그로 인한 기쁨을 떠올리며 지친 마음을 위로받게 된다. 세 번째 연에서는 수선화에 이어 그 곁에서 물결도 춤추는 일에 동참하여 수선화와 하나가 되고, 네 번째 연에서는 화자 역시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기꺼이 춤추는 무리들 속에 참여하여 자연과 공감적 융합<sup>55)</sup>을 이루고 있다.

수선화를 처음 보았던 그 순간을 상상하며 이 시를 썼던 워즈워스는 분명 「수선화」라는 시를 쓰는 과정에서 자연이 주는 선물을 통해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독자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시적화자인 워즈워스가 수선화를 통해 느끼는 기쁨에 감정이입하여 치유의 경험을 내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독자들이 시를 읽으면서 시적화자의 감정과 욕구에 동일시를 통하여 공감할 경우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 (self-management)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정서지능의 구성요소 중에 하나로써 헤닝어가 제시한 시치료의 원리 중 ‘활동적인 숙달방법’에 해당한다. 즉,

55) 김영숙, 「윌리엄 워즈워스 시의 생태학적 해석: “나는 구름처럼 홀로 헤맸네”와 “틴틴 사원”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p. 13.

자기인식(self-awareness)을 통한 자신의 현재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감정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의 주체자가 될 때, 인간은 내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시에서 보여주는 무리지어 진정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수선화의 모습을 통해서, 타인과 조화되어 어우러진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성요소로는 ‘공동체의식’, ‘배려’, ‘협동’ 등이 있다. 또한 “그럴 때면 내 가슴 기쁨에 넘쳐 수선화와 함께 춤을 추네.” 라는 마지막 두 행에서 볼 때,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려는 시적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시인의 생태주의적 자연관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 시를 통하여 영시 수업을 했을 때, 최근 인성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자세와 협업능력, 공감능력, ‘환경의식’, ‘타인존중’과 같은 인성역량 요소들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분석할 시는 워즈워스의 범신론적 관점과 생태주의적 세계관이 잘 나타난 「이른 봄에 지은 시」이다.

나는 수많은 가락이 뒤섞여 울리는 것을 들었다.  
숲 속에 기대앉아  
즐거운 생각이 슬픈 생각을 끌어내는  
그 감미로운 기분에 젖어

자연은 내게 흐르는 영혼을  
아름다운 제 작품에 이어 주었으니  
오늘날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내 마음 몹시 슬퍼졌다.

푸른 나무 그늘 속 앵초 덩굴 사이로  
협죽도 무리지어 길게 늘어져 있고  
모든 꽃마다 숨 쉬는 대기를 즐기고 있다고  
나는 믿었다.

새들이 내 둘레에서 뛰며 놀았다.  
그들의 생각 내 헤아릴 수 없어도  
그들이 짓는 조그만 몸짓마저도  
짜릿한 기쁨인 듯했다.

싹트는 나뭇가지들은 부채살을 펼쳐  
산들바람을 잡으려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엔  
즐거움이 있었다.

이러한 믿음이 하늘에서 보내온 것이라면,  
이것이 자연의 신성한 계획이라면,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것을  
내 어이 슬퍼하지 않으리?

I heard a thousand blended notes,  
While in a grove I sate reclined,  
In that sweet mood when pleasant thoughts  
Bring sad thoughts to the mind.

To her fair works did Nature link  
The human soul that through me ran;  
And much it grieved my heart to think  
What man has made of man.

Through primrose tufts, in that green bower,  
The periwinkle trailed its wreaths;  
And 'tis my faith that every flower  
Enjoys the air it breaths.

The birds around me hopped and played,  
Their thoughts I cannot measure: --  
But the least motion which they made  
It seemed a thrill of pleasure.

The budding twigs spread out their fan  
To catch the breezy air;  
And I must think, do all I can,  
That there was pleasure there.

If this belief from heaven be sent,  
If such be Nature's holy plan,  
Have I not reason to lament  
What man has made of man?

이 시에서 시인은 이른 봄 숲 속에 앉아 새들의 즐거운 노래를 들으며 자연 속

에서 마음껏 뛰어 노는 새들의 모습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다. 자연과 동화되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낌과 동시에 자연도 인간과 같은 생명력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세 번째 연에서 “모든 꽃마다 숨 쉬는 대기를 즐기고 있다고/ 나는 믿었다.”와 다섯 번째 연에서 “싹트는 나뭇가지들은 부채살을 펼쳐 산들바람을 잡으려 했다.”라는 구절에서 보면 시적화자가 자연을 인간과 같이 동등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꽃들이 스스로 즐기고, 나뭇가지들은 산들바람을 잡으려 부채를 펴는 등 모든 행동에는 인간이 느끼는 감각인 즐거움이 내재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 묘사된 자연은 인간이 보고 즐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내재적 가치를 지닌 능동적인 주체로서 존재한다.

위즈워스는 자연의 일부였던 인간이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로 인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 자연과 유리된 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한탄하며 슬픔을 느끼고 있다. 시인은 2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시인 자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오늘날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 내 마음 몹시 슬퍼졌다.” 여기서 이 시의 제 2연과 6연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일”이란 바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인해 인간 스스로 자연으로부터 소외되게 만든 인간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독자들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생태주의적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인간중심주의에 의한 생태계 파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고, 갈등론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지배계급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기존질서를 정당화시키려는 지배층의 횡포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시에서 시적화자는 생태주의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고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공생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독자들에게 자연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시 속에 내재된 생태주의적 사고는 결국 생명존중사상으로 확장되어 연결될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시는 문학적 효용성이 큰 텍스트로써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인 이원주의, 계급질서주의, 합리주의에서 탈피하여 인간이란 존재가 자연생태계의 일부라는 생태적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자연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애정, 생명존

중사상과 자기희생적 인류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최소영은 시인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서 내담자에게 전달되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시이고 그러한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내담자는 자기인식을 촉진하게 된다고 하였는데,<sup>56)</sup> 이러한 시치료의 원리는 헤닝어가 제시한 시치료의 원리 중 ‘이해하는 방법’에 해당된다. 즉, 이 시를 통해 독자들은 위즈워스가 자연을 바라보는 생태적 사고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자연을 아끼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생태학적인 홀리스틱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위즈워스는 이 시를 통해서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영(soul)이 있다고 여기고 이를 신성한 존재로 인식하는 범신론적 자연관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 속에 생동하는 생명력을 느끼며 즐거워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자연과 동화되지 못하는 인간의 행동에 슬픔을 느끼며 자연에 대한 사랑을 생태학적 관점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생태학적 사고와 생명존중사상을 담고 있는 이 시를 활용한 시 수업을 통해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한다는 생태학적인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다. 이러한 생태학적인 세계관이 지향하는 인성요소에는 ‘공동체의식’, ‘환경의식’, ‘윤리의식’, ‘도덕적 판단력’, ‘존중’, ‘책임’, ‘타인존중’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시는 「루시의 연가」 (“Lucy poems”) 중의 하나인 「그녀는 인적 없는 곳에 살았네」이다.

그녀는 인적 없는 곳에 살았네  
 도브강 원류 가까이  
 칭찬해 줄 이도 없고  
 사랑해 줄 이도 없던 그 소녀.

이끼 낀 바위 옆  
 반쯤 가려져 홀로 피어있는 한 떨기 체비꽃!  
 하늘에 빛나는 단 하나의 별처럼  
 아름답던 그 소녀.

아는 이 없이 살다가

56) 최소영, 「치료적 시문학 교육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p. 308.

아는 이 없이 가 버린 루시,  
이제는 무덤 속에 있으니  
아, 내겐 모든 것이 달라졌도다!

She dwelt among the untrodden ways  
Beside the spring of Dove,  
A maid whom there were none to praise  
And very few to love;

A violet by a mossy stone  
Half hidden from the eye!  
--Fair as a star, when only one  
Is shining in the sky.

She lived unknown, and few could know  
When Lucy ceased to be;  
But she is in her grave, and, oh,  
The difference to me!

이 시는 모든 생명체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생명존중사상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들과 자기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에게 이 시를 들려준다면 치유적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워즈워스는 주로 순수하고 소박한 인간성을 주제로 한 시들을 가치 있다고 여기며, 이 시에서는 산골처녀인 루시를 “이끼 낀 바위 옆”의 “한 떨기 제비꽃”에 비유하고 있다. 제비꽃은 이름 없는 풀꽃이며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시인에게 있어서 이 꽃은 단순한 미물이 아니라 하늘에 빛나는 샛별처럼 고귀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워즈워스는 이처럼 하찮은 존재에게도 생명력을 주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 시에서 루시는 인간세상과 동 떨어져, 자연과 가장 가깝게 지내면서 자연의 요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될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루시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1연에서 루시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자연 속에 흔히 존재하는 풀꽃처럼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2연으로 옮겨가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놀라운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 외면을 중시하는 객체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내면의 가치를 깨닫는 주체 중심적 시각을 가지게 된다. 길가에 핀 무수한 풀꽃 중에 하나와 같은 그녀가 워즈워스의 시각의 변화와 함께 하늘에서 고귀하게 빛나는 별로 비유



되고 있는 것이다. 즉 1연에서는 루시의 객관적인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면, 2연에서는 시적화자인 워즈워스의 마음의 눈을 통해서 보이는 모습을 묘사<sup>57)</sup>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루시와 같은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 한 교실에 배정된 40명 정도의 학생을 1명의 담임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쏟고 그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화하며 소통하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다.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에 급급하고 학생과의 상담은 주로 청소 시간과 점심시간을 쪼개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들뜬에 흔하게 편 보잘 것 없는 풀꽃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학생들, 왕따를 경험하며 소외감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교사들은 워즈워스와 같이 이들을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내면의 눈을 통해서 학생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시치료의 제재로서 사용할 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이 시를 감상하도록 한 후 루시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질문하고 학생들끼리 서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학생들이 워즈워스의 내면의 시각을 이해하고 이에 공감하게 될 때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왕따를 경험하는 학생들은 자기존중감이 신장되어 정서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3연에서 루시의 죽음을 알려주며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는 무덤 속에 있으니 / 아, 내겐 모든 것이 달라졌도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연과 동화되어 고독하게 살던 루시의 죽음을 시인 말고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지만, 이 죽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을 만큼 화자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음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은 워즈워스의 범신론적 자연관이 드러난 부분으로서, 시인은 식물로 묘사되는 루시에게 생명력을 부여하고 하찮은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생명존중사상의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루시와 같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독거노인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극단적 이기주의에 치닫는 요즘 학생들에게 이 시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하며 그들과 소통하고 생명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도록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헤닝어가 제시한 시치료의 원리 중 치료적 탐구과정의 원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57) 김종갑, pp. 41-42.

이 시를 통해서 학생들은 2연에서 위즈워스가 루시를 바라보는 내면의 시선과 3연의 마지막 행에서 루시의 죽음 후 느끼는 위즈워스의 깊은 슬픔에 동일시하여 ‘타인의 입장 이해’, ‘타인 존중’, ‘배려’, ‘공동체의식’, ‘공감능력’, ‘도덕적 감수성’ 과 같은 인성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세상과 단절된 채 혼적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난 루시의 죽음이 시인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듯이, 각각의 생명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일선학교의 교사들은 위즈워스의 시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사회적 협동과 대화를 강조하고 공동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또한 생태적이고 다원주의적 교육을 강조하여,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타인도 소중하게 대하고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시는 사람들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정서를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정화시키는데 효과적인 문학 장르로서 다양한 치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헤닝어는 시치료의 원리를 환기방법, 카타르시스, 치료적 탐구과정, 이해하는 방법, 위안을 주는 정신치료, 활동적인 숙달방법, 그리고 안전한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시를 통해서 독자들은 평소에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하여 마음속의 심리적인 갈등 상황들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고, 동일시를 통하여 시적화자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치료의 원리는 하인즈와 하인즈 베리의 독서치료 4단계인 인식, 고찰, 병치, 자기적용과 5차원 독서치료법인 동일시, 카타르시스, 표출하기, 통찰, 적용의 과정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시치료의 원리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수용적/처방적 요소, 표현적/창조적 요소와 상징적/의식적 요소가 대표적이며, 이러한 방법들은 독자들이 처한 상황과 치료 목적을 고려하여 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성교육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시치료의 원리를 영어교과시간에 활용할 것을 목표로 시치료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시치료 관련 논문들이 국어과에서 국문시를 활용한 시치료 연구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즉 시치료 관련 국내 논문 중에서 아직 영어과에서 시를 활용한 시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영시를 활용한 시치료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영시 텍스트를 시치료의 제재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영시 자체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시 안에서 시치료적 요소를 추출해내는 것이 교사 입장에서 힘들어서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서 영어과에서 시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치료 사용에 적합한 영시 텍스트를 선정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를 위해 시치료적 요소가 내재된 영시 텍스트로서 워즈워스 시인의 시 작품을 선정하여 그의 시론과 자연관 및 대표적인 시 작품에 나타난 시 치료적 요

소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시치료의 원리와 인성요소가 워즈워스의 시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워즈워스의 시가 시치료에 활용되기에 적합한 제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워즈워스의 시에 나타난 시치료적 요소를 시론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워즈워스는 고요 속에 회상된 정서인 사색과 상상력을 통한 시작(詩作)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고 평범한 소재와 일상어를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시 짓기를 함으로서 인생에 대한 통찰과 교훈을 시 속에 담고 있으며, 일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며 묘사하기보다는 상상력의 채색을 가하여 주체자의 시각으로 감동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독자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순수하고 소박한 인간성을 주제로 한 워즈워스의 시에 독자들은 적극적인 감정전이를 일으켜 더욱 공감하게 되고 동일시의 과정을 통해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

워즈워스는 어린 시절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자연과의 교감과 친교를 통해 기쁨을 얻고 자연 시인으로서의 시적 삶을 형성하게 된다.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 불우했던 유년시절동안 자연은 그에게 있어서 벗이자, 스승이며 어버이로서 부정적인 정서를 치유해주는 힘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자연과 교류하면서 워즈워스는 인간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신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 즉, 자연에 영적인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범신론적 자연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 강조하여 논하고 싶은 것은 워즈워스 시인의 시에 나타나 있는 범신론적 자연관과 시치료의 접목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범신론적 사상이란 만물에 신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만물을 생명력이 지닌 하나의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비록 미물일지라도 모든 것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명존중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을 담고 있는 워즈워스의 시 작품을 학생들이 감상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생명존중사상을 내면에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생명경시풍조에서 비롯된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 그로인한 청소년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새롭게 인식하게 된 점은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불어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생태주의적 사고 또한 인성교육 및 생명존중사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생태주의적 사고를 반영하는 시는 시치료의 제재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는 결론적으로 생명존중사상을 담고 있는 워즈워스의 범신론적 자연

관도 시치료에 접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생태학과 관련된 위즈워스의 시에 대한 연구가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인성교육 차원에서 시치료와 연결한 위즈워스의 시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Bibliography

### I. Primary References:

Wordsworth, William. *The Collected Poems of William Wordsworth*.  
Ware, Hertfordshire: Wordsworth Editions Limited, 1994.

Abrams, M. H., et. al.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5th ed.  
Vol. 2. New York: Norton, 1986.

### II. Secondary References:

고미영. 『이야기 치료와 이야기의 세계』. 서울: 청목출판사, 2004.

교육과학기술부(2012e). 『인성교육 설문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2. 9. 4.)

김경순. 「워즈워스의 시에 나타난 이중성」. 『신영어영문학』. 신영어영문학회. 제12집,  
1999.

\_\_\_\_\_. 「워즈워스의 시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영어영문학연구』. 29(3),  
2003.

김광태. 「“Tintern Abbey”에 나타난 William Wordsworth의 자연관」.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2007.

김영숙. 「윌리엄 워즈워스 시의 생태학적 해석: “나는 구름처럼 홀로 헤맸네”와  
“틴턴 사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2.

김종갑. 『워즈워스 삶으로서의 문학』. 건국대학교출판부, 1994.

\_\_\_\_\_. 「Wordsworth의 시에 있어서 이상적인 독자 -자연과 텍스트의 위상과  
관련해서-」. 『영어영문학』. 39(1), 1993.

김현희 외. 『독서치료』. 서울: 학지사, 2001.

\_\_\_\_\_. 『상호작용을 통한 독서치료』. 서울: 학지사, 2010.

문매순. 「『서정 담시집』에 나타난 워즈워스의 자연관」.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  
학교 교육대학원, 2007.

- 변학수. 『문학치료』. 서울: 학지사, 2005.
- 양정실 외.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 원동연 외. 『5차원 독서치료』. 파주: 김영사, 2005.
- 이미숙 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 따른 고등학교교육과정해설 총론 증보편』. 교육부, 2014.
- 이희정. 「중학교 3-1 교과서에 실린 시의 심리치료적 요소 분석」.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 정현진. 「영시를 활용한 영어수업안 연구- 워즈워스의 자연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조난심. 「학교 인격교육의 재음미」. 『교육철학 연구』. 35(2), 2013.
- 최소영. “시치료의 이해와 실제 2 -치유를 위한 시 쓰기”. 제 3회 학술 대회 발표 요지. 한국문학치료학회, 2004.
- \_\_\_\_\_. 「시치료가 정서지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2004.
- \_\_\_\_\_. 「치료적 시문학 교육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시치료의 이해와 임상사례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0, 2005.
- 한미란. 「인성교육을 위한 윤동주 시 교수·학습 방법 연구-시치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 Fox John 저 · 최소영 외 공역. 『시(詩)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 Darbishire, Helen. *The Poet Wordsworth*. London: Oxford UP, 1958.
- Hartman, Geoffrey H. "Nature and the Humanization of the Self in Wordsworth." *English Romantic Poets: Modern Essays in Criticism*. Ed. M. H. Abrams. New York: Oxford UP, 1975.
- Heninger, O. E. "Poetry Therapy." In: S. Arieti(ed.).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2nd Ed. Vol. 7. New York: Basic Books, 1981.
- Hynes, A. M. & Hynes-Berry, M. *Biblio/Poetry Therapy: The Interactive Process: A Handbook*. St. Cloud, MN.: North Star Press, 1994.
- Leedy, J. J. *Poetry the Healer*. Philadelphia. PA: Lippincott, 1973.



- Littledale, Velin K. *Wordsworth: A Philosophical Approach*. Oxford: Oxford UP, 1967.
- Mazza, Nicholas. *Poetr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3.
- Mill, John Stuart. *Autobiography: World's Classics*. Oxford: Oxford UP, 1924.
- Moorman, Mary. *William Wordsworth, A Biography: The Early Years, 1770-1803*. Oxford: Oxford UP, 1957.
- Noyes, Russel. *English Romantic Poetry and Prose*. New York: Oxford UP, 1965.
- Pottle, Frederick A. "The Eye and the Objects." *The Poetry of Wordsworth: Romanticism and Consciousness*. Ed. Harold Bloom. New York: W. W. Norton & Co, 1970.
- Rader, Melvin. *Wordsworth: A Philosophical Approach*. Oxford: Clarendon Press, 1968.
- Reiter, Sherry. "Poetry Therapy: Testimony on Capitol Hill." *Journal of Poetry Therapy* Vol. 10-3, 1997.
- Schweikert, H. C. et. al. *Adventures on English Literature*. New York: Harcourt, 1932.
-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Poetry Therapy(<http://www.poetrytherapy.org>), 「Where and How is Poetry Therapy Used?」
- Williams, Charles. "Wordsworth," *English Romantic Poets*. ed. M. H. Abrams. New York: Oxford UP, 1973.

<Abstract>

A Study on the Elements of Poetry Therapy  
in William Wordsworth's Poetry

Ga-Young Moon

(Supervised by professor Yoon-Deok Hur)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elements of poetry therapy in Wordsworth's poetry as the first step that is to actively use it in the English program for maladjusted adolescents at schools to improve their personality build-up. Here are reasons that Wordsworth was selected as one of many other notable poets for poetry therapy in this study. First, his poems are characterized by a pantheistic view of nature, embracing the value of ecology and life esteem in nature as one unity of spirituality. Also, his poems include the comprehensive factors of functional elements in poetry therapy.

Wordsworth as a representative English romantic poet is known to formulate the romantic poetics along with Samuel Taylor Coleridge. His poetics emphasizes the process of writing poems through imagination and contemplation reflected in tranquility. Reading his poems thus helps to realize a profound meaning in life and spur some introspection by seeing poetic objects as oneself through imagination. Furthermore,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16.

employing the ordinary themes and poetic languages in Wordsworth's poetry would lead to the development of a sense of empathy by identifying oneself with poetic objects and to the healing process of the inner pessimistic emotions by sharing all sorts of human emotions.

Wordsworth, who found great pleasure and the healing power from nature during his childhood, was well aware of the benefits nature offers. His pantheistic view of nature was, thus, shaped as he extended the view to love for all things of the universe from the love of nature. The pantheistic views, in which all creations are seen as one holy being as well as a living thing, involve both ecological views focusing on living with others out of anthropocentrism and the idea of life esteem. Those moral forces as the elements of poetry therapy in Wordsworth's poetry would help heal emotional problems that maladjusted teenagers face, leading to the improvement of personality build-up.

This thesis offers the analysis of the elements of poetry therapy in Wordsworth's poems with an emphasis on the functions and effects of poetry therapy that Owen E. Heninger suggests, such as 'ventilation', 'catharsis', 'exploration', 'understanding', 'support' and 'active mastery'. Furthermore, some concrete examples are provided in order to illustrate how to use the representative ways of poetry therapy such as receptive/prescriptive components, expressive/creative components, and the symbolic/ceremonial components.

As the starting point for this thesis which covers both the pantheistic views of nature in Wordsworth's poetry and poetry therapy as the way of personality build-up for adolescents in an English program, it is expected that multifaceted studies on poetry therapy by applying a wide range of English poems would be performed in the future.